

## AI Fuhr 박사, 전도서, 세션 9

© 2024 알 푸어(AI Fuh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은 지혜를 구현하고 부와 보물을 축적하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Yitron 이나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이익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브야, 뭐가 좋은 거야? 그래서 6장의 끝에서 그는 토브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이 여정이나 탐구의 방향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전 장에서 우리는 현자 코헬렛의 묵상과 묵상에 속담의 지혜가 포함되고 통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낮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찾는 일종의 확률적 지혜에 대한 실질적인 강조점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또한 죽음의 불가피성과 같은 다른 모티프를 자제하는 삶을 즐기라는 내용의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특히 12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 11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티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7장과 1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 조사를 계속합니다. 이제 7장에는 한 가지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들이 모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라는 자제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tov가 무엇인지 찾는 탐구와도 잘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7절이나 7장 1절은 6장과 12절에서 묻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누가 압니까? 좋은 이름은 좋은 향수보다 낮고, 죽는 날은 태어나는 날보다 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코헬렛이 비참하고 슬픔에 잠긴 삶을 사는 것보다 태양을 본 적도 없는 사산아로 사는 것이 어떻게 더 나은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런 속담을 보고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은 기뻐하고, 사람이 죽는 날은 슬퍼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진술이 발견되는 문맥이나 주장의 노선을 염두에 두십시오. 사실, 이어지는 구절들은 1절에서 코헬렛의 요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암시를 주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죽기 위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니라. 산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에 비추어 전도서에서 우리가 찾은 지혜의 계율 중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응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냉정하게 생활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또한 전도서의 다른 곳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자랑하는 것, 오늘날의 성취, 그리고 미래에 아직 펼쳐지지 않은 성취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코헬렛은 인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내일이 가져올 일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신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이 속담의 지혜는 아직 미래에 펼쳐지지 않은 일을 자랑하는 것보다 성취가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좋은 삶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모든 것의 종말이라고 선언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이러저러한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알게 됩니다.

슬픈 얼굴이 마음에 좋기 때문에 슬픔이 웃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생활의 절제를 강조합니다. 반드시 비관주의자나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락한 세상의 삶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절주하게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우매자의 마음은 희락의 집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나으니라. 지혜의 책망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코헬렛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는 항아리 밑에서 가시나무가 딱딱거리는 소리와 같으니라. 즉, 어리석은 사람,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책망이 칭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hevel 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순환적 감각을 보고, 내일의 바보들이 미래에도 다시 올 것이라는 것과 계속해서 계속될 이 어리석음과 광기의 순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훈계는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는 것과 같이 훈계는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강탈은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부패시킨다. 거기에서 부패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인내가 교만보다 낮습니다.

저는 8절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축하할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미리 축하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급히 심령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잠언의 지혜와 매우 일치하게, 참을성을 갖고 말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지 마십시오. 즉, 과거에 살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현재에 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인류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라도 현재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업과 같은 지혜는 선한 것이며 해를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느니라.

따라서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는 존경받아야 할 것이고,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특히 이트론을 찾는다는 점에서 그 혜택도 제한적입니다. 돈이 피난처인 것처럼 지혜도 피난처입니다. 또 다른 지혜는 이익과 안전감을 제공하지만 지식의 장점은 지혜가 그 소유자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인데, 이는 돈이 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좋을 때에는 기뻐하고, 나쁠 때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것과 다른 것을 만드셨으므로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전반에 걸쳐 우리가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심지어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지옥같은 삶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았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의로움 가운데서 멸망하고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코헬렛이 세상의 불의를 관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부족한 것을 관찰하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유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런 종류의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명을 유혹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왜 자신을 파괴합니까?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히브리어 쉘람(Shemam)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이 단어는 구약성서에서 파괴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실제로 다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구약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놀라운 멸망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언어가 쉘람과 관련하여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아마도 Kohelet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의로움으로 인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를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놀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놀라게 합니까? 의인이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의로운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습니다. 말하자면 계란을 모두 그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규범적인 기대는 의로운 사람이 번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일이 너무나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사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왜 시간이 되기 전에 죽나요? 당신의 계란을 모두 의의 바구니에 담아서 좋은 일이 따르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사악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악하게 행동하라는 충동을 받지 마십시오. 당신이 땅에서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당신에 대한 공의와 심판을 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잡고 다른 하나를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어떤 보장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동시에 하나님은 결코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나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극단을 피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한 명의 현명한 사람이 한 도시의 통치자 열 명보다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즉, 지혜가 어떤 의미에서는 칼보다 강하다는 생각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느니라. 전도서 전반에 걸쳐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언어가 어떻게 스며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확실히 타락한 세상의 삶을 성찰하면서 코헬렛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관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신학적 진술은 아니지만, 코헬렛이 우리의 타락한 상태의 현실을 성찰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종이 당신을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도 여러 번 다른 사람을 저주한 것을 마음 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자 코헬레트는 여기서 약간의 속담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돌아다니는 것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Kohelet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고 지혜로워지겠다고 결심했지만 그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1장과 2장 앞부분의 묵상에서 코헬렛은 지혜를 추구했지만 결국 지혜는 적어도 완전한 의미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즉, 그는 계속해서 더 현명해지고 현명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결코 모든 것을 통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든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심오합니다. 누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은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무거움을 사물의 계획 속에서 이해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악의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의 광기를 이해하려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1장에서 그는 지혜를 통해 지혜와 광기와 어리석음을 탐구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는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울무와 같고 마음이 텅터지며 손이 쇠사슬인 여자를 죽음보다 더 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자는 그 여자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자에게 걸리리라. 아마도 코헬렛은 잠언 6장과 7장에서 이런 종류의 여자가 가져올 수 있는 울무를 이해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 방식을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고대 세계의 지혜는 남성 청중을 대상으로 했을 것이므로 잠언 6장과 7장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보다 더 이상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류의 언어가 여성에게 다소 불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28절에서 찾을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성적인 율가미쇼. 그는 이 언어로 창세기 3장, 사물의 계획, 타락한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여자가 고통과 출산으로 저주를 받는 것에 관한 다소 모호한 진술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녀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그녀를 다스려야 한다는 일종의 저주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의 결과로 남녀 사이에 긴장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별 간의 긴장이 결혼 생활이나 관계에서도 경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 완전한 교제를 위해 창조하신 것이 타락으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장과 투쟁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 16절은 창세기 4장과 7절과 언어가 매우 유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죄 사이에 일종의 투쟁이 있을 것이며 죄는 그것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되 그것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같은 종류의 관계를 반영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할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되지만, 둘 사이에는 이런 종류의 투쟁과 긴장이 있을 것이다. 코헬렛은 이러한 지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선생님은 이것이 내가 발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물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다른 것에 하나를 추가하는 것, 즉 이 타락한 천국 세계에서 사물을 알아내기 위해 내가 여전히 찾고 있고 찾지 못하는 동안, 다시 그는 이 트론 을 찾는 이 검색에서 결코 하지 않습니다. 천 명 중에 의로운 남자는 단 한 명도 찾지 못하였으되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의로운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진술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Kohelet이 일부 사람들이 의롭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앞부분 20절에서 그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나 아마도 그는 여자가 지혜로운 남자에게도 올무를 올가미에 놓일 수 있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라 이러한 긴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권위를 위한 이러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코헬렛의 사고 방식에서 현명한 사람이 파악하고 통제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혜 추구.

이것만이 내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인류를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죄를 꾀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타락을 반영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고 심히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서는 현자 코헬렛이 묘사하고 깨달은 이런 종류의 진흙 속에 있지 않도록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코헬렛은 타락한 세상의 삶을 관찰하는 현자입니다. 그는 이것이 원래 의도했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에 매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서는 어떤 의미에서 지혜가 추구하는 일종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락에 대한 해결책은 창세기 3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헬렛은 지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잠언과 전도서 전반에 걸쳐 지혜의 장점에 대한 일종의 확언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지혜를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일축한 후 지혜를 방해할 수 있는 올무와 계략에 대해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8장에서는 지혜를 확인하는 진술의 시작 부분을 발견합니다.

지혜자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물에 대한 설명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그의 굳은 모습을 바꾸어 줍니다. 지혜를 얻고 붙잡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일단 어떤 수준에서든 지혜를 이해하면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남자의 얼굴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이제 8장과 2절부터 4절까지에는 지혜자와 왕의 관계에 관한 일련의 진술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 코헬렛은 신 앞에서, 신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올바른 자세와 지혜로운 사람이 신에게 가져올 합당한 경외심에 대해 성찰합니다. 여기에는 현명한 사람이 왕 앞에 가져갈 적절한 존경심과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였은즉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왕 앞에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나쁜 일을 옹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왕이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왕 앞에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코헬렛은 현명한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전투를 벌일지 조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그는 왕 앞에 경솔하게 원인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왕 앞에 너무 많은 원인을 가져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계산될 것이고 조심할 것이다. 그는 왕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그가 왕 앞에 와서 가져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온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입니다. 왕의 말씀이 크니 누가 그에게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활동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 위에 세워진 인간 권위에 대해 우리도 그들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와 방법을 알 것이다. 제3장의 시에 반영된 생각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고 적절한 시간.

이러한 것들을 아는 현명한 사람은 타이밍과 분별력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며, 역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합당한 때와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의 불행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더라도 전도서 3장과 매우 흡사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3장 10절에서 동일한 언어인 인욘( inyon , 부담)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3장의 언어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아마도 3장 14절을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바람을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죽음의 날을 제어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시기의 적절함을 알지만, 자신의 죽음의 날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신이 정한 시간이라는 접근 방식을 입증하는 것은 시의 시작 부분에 태어나는 시간과 죽을 시간에 대한 시간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면제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악도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석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의 죄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코헬렛이 계산할 때가 있다고 말하는 3장 17절의 표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장의 언어가 3장에 다시 반영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쏟으면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 자신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부와 보물을 축적하여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뿐이라는 그런 종류의 언어를 이전에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자신의 권위와 힘을 빼앗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로 인해 해를 입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악인들이 묻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소를 오가며 이 일을 행한 성에서 칭찬을 받던 사람들. 즉, 탐욕과 부패도 결국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hevel 입니다. 범죄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악을 행하려는 계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코헬렛이 7장에서 탐구하는 사물의 계획은 아마도 악인의 계략을 언급하면서 그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비록 악인이 백 가지 죄를 짓고도 장수하지만, 즉 코헬렛이 관찰하는 일종의 정의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 될 것임을 압니다. 정의에 대한 규범적인 기대에 대한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을 유혹하지 않을 것이며 운명을 유혹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그런 종류의 지혜입니다. 어찌하여 심판을 받고 땅에서 끊어지겠느냐? 나는 그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서 정상적인 지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일종의 확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잘 되지 못하고 그들의 날이 그림자 같이 장구치 못하느니라. 즉, 나는 그런 식으로 나서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악인보다 의인이 더 잘 될 것임을 압니다.

일어나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 , 이 세상 의 불의와 형평성 부족에 대한 관찰과 함께 의미의 가족이 최전선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 의인은 악인의 벌을 받고 악인은 의인의 벌을 받습니다. 이것도 내가 말하는 것은 허위 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크게 좌절감을 느낀다. 나는 이 세상의 부패와 즉각적인 정의와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목격하는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말할 때입니다. 나는 그것도 hevel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모욕이다. 가장 현명한 코헬렛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누구인지, 하늘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생의 즐거움을 칭찬합니다.

인생을 즐기다의 확대를 기억하십시오. 코헬렛은 이전에 삶의 무거움에 비추어 삶의 즐거움을 관찰했으며, 삶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은 삶으로 인해 우리는 지혜로운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단순히 삶의 감성을 관찰하기보다는 교사나 설교자로서 삶의 즐거움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즐거움을 칭찬합니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해 아래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그에게 주신 평생의 모든 날 동안, 그 일에 기쁨이 함께할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알려고 마음을 다했을 때, 7장에서 그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혜를 찾고 있었고, 지혜는 궁극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 즉 항상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다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사람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을

관찰하려고 마음을 쏟았더니 사람의 눈이 밤낮으로 자지 아니하며 4장과 5장에서 사람이 반성하는 염려와 애쓰는 것을 생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찾으려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을 알아낼 수도, 신성을 알아낼 수도, 신성을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헬렛이 계속해서 반복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코헬레트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신을 파악하고 마스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9장 1절에서 이에 대해 반성합니다. 그는 이것을 반성하고 의인과 지혜자와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확실히 주권자가 아니며, 인간은 공동 운명을 공유한다는 사실 외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악인,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그 공동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무덤.

선한 사람이 그러하듯 죄인도 그러합니다. 맹세하는 자의 경우와 같이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의 경우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악이니라.

그리고 이것은 코헬렛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일종의 도덕적 악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단순히 엄청난 불안, 괴로움, 무거움의 좌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악이니라.

같은 운명이 모든 사람에게 닥칩니다. 3장 21절과 22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정의가 결여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마음에 광기가 있다가 나중에는 죽은 자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살아 있는 자 중에 누구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나은데, 이는 아마도 우리가 전도서에서 볼 수 있는 지혜의 종류, 즉 현재 지혜의 구현에 관한 개연성과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산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으며, 심지어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잊혀졌습니다. 즉, 지구, 태양 아래서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서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심판의 자리와 우리가 신약에서 알고 있는 일종의 상급 기초에 관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어떤 면에서 모순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덤에서 활동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활동 시간은 언제인가요? 활동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에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도, 미움도, 질투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섯 번째 인생을 즐기세요 후렴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찰과 칭찬에서뿐만 아니라 계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필수로 전환했습니다.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이제 하나님이 네 하는 일을 기뻐하심이니라. 항상 흰 옷을 입고 항상 기름을 머리에 바르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겨보세요.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너희에게 주신 이 평안한 삶의 모든 날, 우리가 해 아래서 누리는 이 삶의 모든 날은 덧없고 때로는 터무니없고 때로는 수수께끼 같고 때로는 매우 답답하고 때로는 아주 무의미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몫이요, 당신이 누리는 일이요, 인생에서 당신이 할당받은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말 에서는 태양 아래서 당신의 수고를 하십니다. 네 손이 일을 찾으면 무엇이든지 온 힘을 다하여 행하라. 그리고 나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코헬렛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갈 무덤, 스올 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고 있는데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전도서의 지혜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당신에게 보장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코헬렛이 태양 아래서 뭔가 다른 것을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경주는 빠른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강한 자에게 전쟁이 임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로운 자에게 음식이 주어지지 않으며, 명석한 자에게 음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이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호의는 배운 사람이나 교육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에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신론적인 때와 기회가 아니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시간과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때가 언제 올는지, 자기의 때와 심판의 날과 자기의 죽는 기한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므로 사람이 재난의 때에 갇히느니라 예기치 않게 그들에게 넘어집니다. 사실은, 이걸 먹고 나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단지 모른다. 보장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운전할 수도 있고 교통법규를 현명하게 준수하면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나에게 예기치 않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전도서의 지혜는 현재의 기회를 찾는 삶에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시 이야기와 잠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확률론적 지혜에 대한 같은 종류의 사고 방식이 계속됩니다. 9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는 이러한 예시 이야기 중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예시 이야기는 불의의 문제와 지혜의 장점과 실패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본 지혜의 본은 내게 심히 감동이요 지혜의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강력한 왕이 와서 그 도시를 포위하고 포위 공격을 가했습니다. 마침 그 도시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자기 지혜로 그 도시를 구원하였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단지 그의 지혜를 통해 이 강력한 왕에 맞서 도시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코헬렛은 이것을 엄청난 불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지혜는 힘보다 낫고 지혜에는 능력과 유익이 있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이 더 이상 듣지 아니하느니라. 즉, 그 현명한 행동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빨리 정복됐네요. 지혜로운 자들의 조용한 말은 어리석은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외침보다 더 유의할 것이니라. 즉, 지혜는 강력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유익과 지혜의 힘을 보지만 지혜의 취약성, 지혜가 얼마나 빨리 안개나 지옥으로 증발하는지도 봅니다. 죽은 파리가 향수에 악취를 풍기듯이,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혜가 손상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것은 반드시 오른 손잡이 개인과 왼손잡이 개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권력이 주어진 왕의 오른편과 노예가 행사되는 왕의 왼편에서 지혜는 권위 있는 자리에 적합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권위에 적합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노예의 위치.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가면서도 이성이 부족하여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동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치자가 당신을 향해 분노한다면, 당신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평온함은 큰 실수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8장에서 코헬렛은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거나 왕 앞에 소송을 제기할 때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 성찰합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적절한 태도도 있고, 어쩌면 분노를 진정시키는 데 접근하는 적절한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약간의 지혜와 타락한 세상에서 지혜를 행사하는 방법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을 보았나니 곧 통치자에게서 나오는 그릇된 일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는 낮은 자리에 앉는다. 즉, 그는 이 세상의 정부와 지도자들이 반드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 때때로 발생하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나는 노예들이 말을 타고 가는 동안 왕자들이 노예처럼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선두에 오르는 방식으로 사물이 건설되고 구조화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바보가 높은 자리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수도 있다.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도 있다.

이것은 일종의 간단한 관찰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요점이 있습니다. 돌을 채굴하는 사람은 돌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통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누구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1996년판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러한 관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합니다. 이것이 삶의 위험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찰에 요약되어 있는 지혜가 위험 지향적 지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이 실제로 계속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적절하고 측정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것이 바로 이러한 관찰의 요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위험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현명하게 일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현명하게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속담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도끼가 무뎠고 날이 날카롭지 않으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 기술이 성공할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다시 지혜의 유익을 이렇게 의역합니다. 즉, 지혜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뱀이 매혹되기 전에 물면 매혹자에게는 이익이 없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뱀이 이미 마술사를 물었다면 마술사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속담의 망치가 떨어지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이익이나 이득을 얻을 기회가 전혀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로우나 미련한 자는 자기 입술로 말미암아 멸망하느니라 그의 말은 처음에는 어리석고 마지막에는 사악한 광기이며,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전통적인 통념을 반영하여, 바보는 자신의 언어 사용, 말의 사용으로 측정되지 않고 뱉어내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어리석은 자의 자랑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전도서에서 본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이미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축하하고 자랑하기 전에 자신의 모험의 결과가 무엇인지,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종류의 성공을 가져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이 가져올 큰 성취를 자랑하지만 어떤 행사에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증거가 실제로 결실을 맺기도 전에 자랑하는 바보의 언어입니다.

바보의 일은 그를 지치게 한다. 그는 시내로 가는 길을 모른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충고를 하기 쉬운 사람이고,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6절. 오 땅이여, 그 왕은 종이 되고 그 방백들은 아침에 잔치하느니라. 그 나라의 왕은 귀족 출신이요, 그 고관들은 술 취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해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이 있도다.

아마도 여기서 정치적 거버넌스를 생각하면서 코헬렛은 타락한 세상의 개인들이 훌륭한 지도력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은 축복받은 일이라고 관찰합니다. 물론 부패한 지도자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8절.

사람이 게으르면 서까래가 처진다. 손이 가만히 있으면 집이 새는 법이다. 나태한 행동과 게으름에 대한 통념.

즉, 코헬렛이 수용하는 노동 윤리는 근면의 책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인식하는 노동 윤리입니다. 19절. 잔치를 베풀면 웃겠고 포도주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니와 모든 것에는 돈이 있느니라.

나는 이전 강의에서 다소 이상해 보이는 이 잠언을 언급했는데, 특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성경의 다른 본문이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돈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내용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온갖 악. 여기서 코헬렛은 어떤 면에서 그의 지혜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돈을 포용하는 일종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의 효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더 큰 정도와 확률을 찾기 위해 인생에서 실천해야 할 실천적 지혜이다. 웃음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이 매우 좁은 영역에서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삶을 즐겁게 만듭니다. 와인은 이럴 때 좋습니다. 그러나 돈은 광범위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지혜는 개연성과 가능성에 기초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그 점에서 돈의 장점을 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을 나는 새가 네 말을 전할 수도 있고 날개 위의 새가 네 말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8장에서 본 내용과 특히 지혜로운 사람이 합당한 존경과 존경을 표해야 할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 사용에 관해 앞선 몇 구절에서 본 내용과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왕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고용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위에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가십이 퍼지는 경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험담은 코헬렛이 아주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길 일종의 어리석은 모험입니다.

즉, 이 타락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매우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할 때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짧은 말이 언제 날개 위의 새에 의해 옮겨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1장에서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즐기는 삶에 바탕을 둔 또 다른 일련의 잠언을 시작합니다. 11장 1절에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모험을 즐겨보세요.

앞으로 단계. 항상 줄 뒤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모험적으로 인생을 산다면, 위험을 다양화한다는 의미에서도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현대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마십시오.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땅에 비를 쏟아 붓습니다.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든지 그 쓰러진 곳에는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은 다소 이상한 진술이지만, 코헬렛이 단순히 인간이 궁극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는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때때로 상황은 인간이 그러한 상황을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이미 일어난 일들을 통제할 수 없을 때에도 인생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4절에 “바람을 보는 자는 심지 아니하고 구름을 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완벽한 조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바깥 상황이 무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이 잠언의 주된 모티브인 것 같습니다. 바람의 길을 모르며, 어머니의 태에서 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르듯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지혜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모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비추어, 현재의 삶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 당신이 갖고 있는

제한된 지식, 관찰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숙달하지 못할지라도 인생에서 모험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제 코헬렛은 책 앞부분에서 자신이 괴로워했던 불안한 노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그냥 앉아서 일이 닥치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험심이 있어야 하며,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성공할 것인지, 저것이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똑같이 잘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업무를 현명하게 수행하세요.

그렇게 하고 다양화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이 더 커집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탐색하기 위해 Kohelet이 구현하는 지혜입니다.

7절, 빛은 달콤하여 해를 보는 것이 눈을 즐겁게 하느니라. 확실히 코헬렛은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서 경험되는 선함, 또는 살아 있는 사람의 삶에서 경험되는 잠재적인 선함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몇 년을 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즐기도록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인 인생을 즐기세요 후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어둠의 날들을 기억하게 하라. 코헬렛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어둠의 날과 고난의 날을 관찰하고 진지하게 살아왔습니다. 초상집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이야기한 7장의 잠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들을 모르고 그저 웃기만 하는 어리석은 솔과 같지 마십시오. 인생을 즐길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을 인식하지 못한 채 눈을 가리고 살지 마십시오.

여기서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시절도 있을 것이고 나쁜 시절도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 가지 모두를 탐색하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은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인생의 덧없고 일시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젊음이여, 젊을 때 행복하십시오. 따라서 젊음과 함께 제공되는 잠재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젊음의 날에 네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지금은 속담의 황소의 뿔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때입니다. 네 마음의 길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시리라 생각하라.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패러다임인 놀라운 양면 지혜의 동전입니다. 인생을 즐기며, 저주받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주시는 은혜를 최대한 활용하되, 저주받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죄는 매우 흔한 경험입니다. 7장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헬렛은 그것을 알고 있으며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도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응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냉철하게 인식하고, 고통을 잊지 않고, 삶의 유혹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즐기지만 죄는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근심을 없애고 너희 몸의 괴로움을 버리라. 기억하세요, Kohelet은 사람이 인생에서 노력하고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젊음과 활력을 위해 몸의 문제를 버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불쌍한 일이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덧없다. 오늘이 현재의 가능성을 위한 날임을 아십시오.

젊음과 활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가능성을 파악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언젠가는 하나님께 응답하게 될 것임을 아십시오.

그래서 미래에 무엇이 올지 인식하는 동시에 현재 시제 관점을 가지십시오. 네가 젊었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당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답할 것이라는 이해의 생각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즉, 오늘은 인생을 즐길 뿐만 아니라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아무 즐거움도 없다고 말할 해가 다가오기 전에 당신의 창조자와 당신이 행한 활동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오기 전에, 집 지키는 자들이 떨어져, 강한 자들이 굽히기 전에, 맷돌질하는 자가 적으므로 창으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코헬렛은 우리에게 노화 과정에 대한 그림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가 그린 각 그림에 직접적인 언급을 붙이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여기에는 노화 과정을 다양한 측면이나 측면에서 묘사하는 일종의 우화적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삶의 요소.

예를 들어, 3절에서 집 지키는 자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늙은 사람의 손이 떨고, 힘센 자들은 다리의 근육이, 다리의 강한 근육이, 팔의 근육이 구부러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라인더가 멈출 때 등이 굽기 시작합니다. 특히 현대 치과학 등이 없었던 고대 상황에서 사람이 치아에 빠지거나 노인의 치아가 빠지는 것을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치아가 빠지고 창문을 통해 보는 사람들은 어두워지고 녹내장과 기타 눈의 질병이 생깁니다. 우리는 노년기에 시력이 흐려진 고대 성인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아마도 눈과 시력 상실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거리의 문이 닫히면 귀를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며, 새소리에 사람들이 일어날 때 갈리는 소리도 잦아듭니다. 따라서 노화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청력 상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종종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할 때 모든 노래는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매우 조심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노인이 넘어지면 젊은 사람이 노인이 회복하기 매우 쉬운

일을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불구로 만들고 무덤으로 이끄는 그런 종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의 위험에 대해 분명히 노인들은 같은 수준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아몬드 나무가 꽃을 피울 때 아마도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몸을 끌고 가는 것은 연약함을 뜻하는 것인지, 욕망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은 노인의 성욕이 부족한 것을 뜻하는 것인지이다. 사람은 자기 영원한 집으로 가고, 사람은 자기 영원한 집으로 가고 애도하는 자들은 거리로 돌아다닙니다. 분명히 무덤에서의 죽음의 지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금그릇이 우물에서 깨어지기 전에, 물통이 우물에서 깨어지기 전에, 바퀴가 우물에서 부서지기 전에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코헬렛이 말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고 흠이 다시 흠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의 이미지와 언어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에서 코헬렛은 그 사람의 생명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지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호흡은 아마도 그가 행한 행위에 대해 응답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간의 영에 대한 일종의 종말론적 현실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Kohelet이 여기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에 대해 너무 많은 신학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창세기 3장의 언어를 반영하기 위해 우리가 필연적으로 흠먼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코헬렛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최상급 헤벨 판단과 함께 포함의 브라케팅의 뒷부분으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Hebel of Hevels 는 Kohelet의 모든 것이 Hebel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책을 마무리하는 코헬렛의 묵상에 대한 논평과 매우 흡사한 내용입니다. 코헬렛은 현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코헬렛에 대한

제3자의 언급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했습니다. 즉, 그는 책에 대한 일종의 결론 해설로서 많은 잠언을 숙고하고 찾아 정리했습니다. 특히 7장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확실히 많은 잠언을 보았습니다. 코헬렛이 딱 맞는 단어를 찾기 위해 찾아본 교사와 그가 쓴 내용은 올바르고 진실되었습니다. 이 책은 마스터하기가 불가능한 책이지만 엄청나게 심오하며 그 안에 담긴 지혜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책입니다.

작가 (아마도 Kohelet)는 아마도 Kohelet의 삶과 유산을 다루는 책의 저자일 것입니다. 여기서 에필로그의 작가는 Kohelet의 말이 옳고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코헬렛이 잘못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했다는 것, 코헬렛의 지혜가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논평은 없습니다. 오히려 코헬렛의 지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유익을 얻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찌르는 막대기와 같으니 곧 찌르고 모아둔 말은 박힌 못과 같으니라. 그들은 한 목자가 준 일종의 안정성과 기초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번역에서는 대문자로 목자를 사용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암시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목자를 대문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영감받은 지혜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혜를 제공하는 목자 현인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실제로 매우 모호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코헬레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정경 문헌의 일부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일부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 분이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서 자체의 말씀으로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에필로그의 저자는 우리가 잠언의 교훈적 담론에서 발견하는 종류의 명령을 제시합니다. 내 아들에게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 경고하고 당신이 받는 지혜에 조심하십시오. 그는 기본적으로 Kohelet이 여기서 말한 것에 승인 도장을 찍었지만 거기에는 많은 단어가 있고 거기에는 많은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책을 많이 만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많으면 몸이 피곤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이제 13절과 14절은 이전 강의에서 보았던 책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모티프는 전도서 3장과 17절, 5장, 1-7장, 11절과 9절에 스며들어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모두 코헬렛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합당한 경외심을 반영합니다. 전도서에서는 12장 13절과 14절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 듯이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은 이러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인간의 전체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일부 번역은 인간의 전체 의무와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모든 남성에게 적용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실제로 상당히 모호합니다. Kohelet은 은유를 통해 의도적인 모호함을 통해 여러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참조하는 것이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이것이 인간의 의무를 포괄하는 전부이고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매우 간결하게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나는 숨겨진 모든 것에 대한 언급이 아마도 여기에 종말론적인 사후 심판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시며 인간이 이 필멸의 타락한 존재에서 행한 모든 일을 회계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냉정하게 살아라. 당신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장래에 선하든지 악하든 하나님께 응답하리라는 것을 알라. 이 양면 지혜의 동전의 양면을 쥐고 인생을 즐기되 냉정하게 살아라.

인생을 즐기되 죄를 즐기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임을 아십시오.